

(原文は日本語/원문은 일본어)

韓日学生国際親善交流について

— 第三回交流カトリック大学生副代表として —

尹 賢珠 (ユン ヒョンジュ)¹

韓日学生国際親善交流は韓国のカトリック大学の学生たちと日本の信州大学の学生たちが交流できる最大の行事だといえます。日本と韓国の学生が一緒に生活しながら、いろいろなことを話し合っ、わからなかったお互いの文化を学ぶことができる大事な時間だと思ひます。それだけではなく、さまざまな行事を一緒に体験したり、小さな贈り物も交換したりして、お互いに友達になることができるいい機会です。今年でもう四回目の信州大学との交流ですが、一番最近の交流であった 2002 年度の交流会の日程を例としてみてみたいと思ひます。

2002 年度は 10 月 20 日から 10 月 26 日までの 6 泊 7 日の日程でした。最初の日には簡単にお茶会をして韓国と日本の学生たちが自己紹介などをしながら少しずつお互いに親しくなるために自由に話をします。この日から日本人の学生たちはカトリック大学内の研修院で生活することになります。カトリック大学の学生の中でもここで泊まって日本人の学生たちと一緒に過ごす学生もいます。二日目の日は日本語スピーチ大会がありました。これは韓国の学生がみんなの前に出て日本語で発表するものです。スピーチ大会は一年一回、韓日国際親善交流のとき行われる大規模の行事です。審査は客観的にするために両国の先生方や日本人の学生に任せています。三日目は座談会がありました。参考として 2002 年のときは韓国・日本の大学生活について比較しながら討論しました。四日目はフリートーキングとホームステイがありました。ホームステイは日本人の学生たちが直接韓国家庭に一泊泊まりながら韓国というところに対して学べる行事だといえます。ホームステイは韓国人の学生一人と日本人の学生一人がペアになって一緒に行動します。大体、東大門のミルリオレなどのショッピングモールや若者たちがよく行くところであるミョンドンや大学路、韓国の伝統文化が感じられる仁寺洞、その

¹ 2003 年 10 月から 2004 年 9 月までの信州大学受入留学生。2002 年度、第三回韓国言語文化研修時のカトリック大学側副代表。代表・副代表は立候補制の選挙で選ばれている。本記録は 2004 年度韓国言語文化研修における第 1 回事前研修にて発表した、前回交流のカトリック大学側副代表としての経験に基づくスピーチ原稿である。【編集委員会記】

近くの鍾路、また南山、新村などを見物しに行きます。一日中市内の見物をしてから日本人の学生は韓国人の学生の家庭に行って一晩を過ごします。韓国人の学生の家族と一緒にご飯を食べながら韓国について、韓国人について知ることができます。このように一日が過ぎると韓国人の学生と日本人の学生は少しでもお互いのことを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と思います。その次の日は午後くらいに学校に戻ってきて沖先生の特別講義がありまして、その後、信州大学から準備してきたゲームやお茶会などをしました。次に、別れの前日です。この日はカトリック大学の学生たちが日本語言語演劇をしました。小品や衣装なども全部手作りでした。2002年度は新桃太郎を演劇しましたが、台本も学生たちが作って日本人の先生に検討してもらいました。夜には送別会をしました。カトリック大学や信州大学の学生たちが連絡先を交換したり、一緒にお酒を飲んだりしながら別れを悲しみます。最後の26日は朝ごはんの後すぐ空港へ向かいました。このような日程で一週間をカトリック大学の学生と一緒に生活しながら韓国の文化や韓国人の生活様子を理解し、また韓国でどのように日本語の教育が行われているのかがわかります。

交流ということはその期間だけで終わることではないです。本当の交流は交流期間が終わってから始まって、お互い話し合いながら、作り出されるものであります。韓国のカトリック大学の学生たちは交流が始まるずっと前から皆さんを迎えるためにいろいろなことを準備し始めます。準備しながら大変だと思いつきもありますが、信州大学の学生たちに会うのを楽しみに思いながらもっと頑張っています。日本人の友達ができるだろう、日本語で話す機会ができるぞなどを楽しみに待っています。また、日本人と話してみたいと思う学生は多いですが、恥ずかしくてあまり話せない学生もいると思います。そのような学生には信州大学の学生から話しかけてくれると心からうれしく思うと思います。

한일학생국제친선교류에 대해서

— 제 3 회 교류가톨릭대학생대표로서 —

윤 현주¹

한일학생국제친선교류는 한국의 가톨릭대학교 학생과 일본의 신슈대학의 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는 최대의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대학생이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몰랐던 서로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가지의 행사를 함께 하면서 작은 선물도 교환하며,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금년으로 벌써 신슈대학과의 4 번째 교류로, 가장 최근의 교류였던 2002 년도의 교류회의 일정을 예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2002 년은 10 월 20 일부터 10 월 26 일까지 6 박 7 일의 일정이었습니다. 첫날은 간단히 차를 마시며 한국과 일본 학생들이 자기소개를 하면서 조금씩 서로 친해질 수 있도록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부터 일본인 학생은 가톨릭대학교안의 연수원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가톨릭대학교의 학생중에서도 여기서 머물면서 일본인 학생들과 함께 생활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두번째 날은 일본어 스피치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학생이 모두의 앞에 나가서 일본어로 발표하는 것입니다. 스피치대회는 일년에 한번, 한일국제친선교류 때 행해지는 대규모의 행사로서 일본어를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1 번정도는 참가해보고 싶어하는 행사입니다. 심사는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 양국의 선생님들과 일본인 학생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삼일제는 좌담회가 있었습니다. 참고로서 2002 년도에는 한국, 일본의 대학생활에 대해서 비교해가며 토론했습니다. 사일제는 프리토킹과 홈스테이가 있었습니다. 홈스테이는 일본인의 학생이 직접 한국가정에 하루 머물면서 한국이라는 곳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홈스테이는 한국학생 한명과 일본 학생 한명이 짝이 되어 함께 행동합니다. 대부분 동대문의 밀리오레등 쇼핑몰이나

¹ 2003 년 10 월~2004 년 9 월까지의 신슈대학교 교환유학생. 2002 년도 제 3 회 한국문화연수시 가톨릭대학교측의 부대표. 대표, 부대표는 입후보제 선거로 선발되어 진다. 본 기록은 2004 년도 한국언어문화연수에 있어서의 제 1 회 사전 연수에서 발표된, 전회교류의 가톨릭대학 측 부대표로서의 경험에 근거한 스피치 원고이다. (편집위원회)

젊은이들이 자주 가는 곳인 명동, 대학로, 한국의 전통문화를 느낄 수 있는 인사동, 그 근처의 종로, 또는 남산, 신천등을 구경하러 갑니다. 하루종일 시내를 구경하고 일본학생은 한국학생의 가정에 가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한국학생의 가족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한국에 대해, 한국인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지나면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은 조금이라도 서로를 이해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날은 오후정도에 학교에 돌아가서 오키선생님의 특강이 있었고, 그 후 차를 마시며 신슈대학에서 준비해 온 게임을 하였습니다. 다음날은 헤어지기 전날입니다. 이 날은 가톨릭대학의 학생들이 일본어 원어연극을 했습니다. 이날을 위해 가톨릭대학의 학생들은 여름방학부터 매주 모여서 연습을 했습니다. 소품이랑 의상등도 모두 직접 만들었습니다. 2002 년도는 신모모타로를 연극했는데 대본도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서 일본인 선생님께서 검토해주셨습니다. 저녁에는 송별회를 했습니다. 가톨릭대학과 신슈대학의 학생들이 같이 술을 마시며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는 등 헤어짐을 슬퍼합니다. 마지막 날인 26 일은 아침밥을 먹고 바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러한 일정으로 1 주간을 가톨릭대학의 학생과 함께 생활하면서 한국의 문화와 한국인의 생활모습을 이해하고, 또 한국에서 어떻게 일본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교류라고 하는 것은 그 기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교류는 교류기간이 끝나고 나서 시작되서, 서로 이야기하며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국의 가톨릭대학의 학생들은 교류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신슈대학 학생들을 맞이하기 위해 여러가지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준비하면서 힘들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신슈대학 학생들을 만날 것을 설레여하며 더욱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친구가 생기겠지, 일본어로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는구나 등을 설레여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일본인과 이야기 해 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많지만 창피해서 말 못하는 학생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학생에게는 신슈대학 학생들이 먼저 말을 걸어주면 정말 기쁠것입니다.